

# 서울 전문계고, 우수학생 몰려

전문계고 인식개선 및 소신지원 증가

서울지역 전문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포함)에 대한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 전년도에 비해 우수학생이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경희)은 12월 11일 2010학년도 전문계고 신입생 모집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문계고는 마이스터고 2개교, 특목고 1개교, 특성화고 30개교, 일반전문계고 42개교 등

모두 75개교에 모집정원은 19,644명이며, 지원인원은 모두 22,815명으로 경쟁률은 1.16대1을 기록해 전체 모집정원을 초과했다.

특히 올해는 입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전문계고의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적극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전문계고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신입생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다양한 방식의 진로지도 설명회가 열려 전문계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이고 학생 본인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미리 찾을 수 있도록 도움 결과 본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소신지원과 우수학생 지원이 늘어났다. 교육청은 전문계고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키우면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학교, 취업과 대학진학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앞으로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특성화고 확대, 산학연계 협력교육,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전문계고의 교육활동을 내실화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원석 기자 ws@eduyonhap.com



◆ 인천상아초등학교는 금융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관을 갖도록 돕고 있다.

## 아침 꼭 먹을게요~!

서울 천일중, 아침밥먹기 운동 참여

서울 천일중학교(교장 임영갑)는 지난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관내 광진 청소년수련관(원장 박도희)이 진행하는 3GO 프로젝트(‘학교Go, 밥먹Go, 공부하Go’)에 참여했다.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학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시의 지원으로 광진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수련관 소속의 전문 지도교사들이 강사로 나와 학생들에게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학생들에게 아침식사로 맛있는 죽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 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른 아침에 등교해 지도교사의 설명을 듣고, 질서 정연하게 아침 식사를 했다.

1학년 김정현 학생은 “우리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잘못된 습관을 반성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으며, 이수경 교사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고 등교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대학로 등 공연장 집중 안전점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관람객 집중이 예상되는 서울 대학로와 서울 중구지역 소공연장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11월 동절기 대비 및 ‘부산 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내 공연장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공연장에서 비상대피로·소화시설 미비 등 공연장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서울 대학로와 중구지역 소공연장 20여 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은 문광부, 한국산업기술평화원(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

터), 서울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10일부터 다음달 31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되며, 비상대피로 확보, 화재감지 및 경보기 작동 상태 등 소방·대피시설과 누전차단기, 배선상태 등 전기시설, 조명·음향 등 무대시설 등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문광부는 공연장 등록범위를 현재 100석 이상에서 50석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공연장 등록시 제출하는 재해예방조치계획서에 ‘소방 및 대피시설 관련 사항’을 포함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연장 관리자 안전 교육 의무화 등 공연장 안전관련 규정의 정비와 공연장 안전시설 개선,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제작할 계획이다.

## “공부는 계속되어야 한다”

인천한오름학교,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학부모·교사 연수

인천광역시 교육감지정 학력인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한오름학교(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내 운영)에서는 지난 8일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가졌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정규 중·고교 과정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기존 학교에 학적을 둔 채 다닐 수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다니더라도 원격교에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모들과 학생들에게는 큰 힘을 실어 준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라고 배우는 일을 포기하거나 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대안학교들

이 많이 늘었지만 학부모와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지도하는 교사들의 고충 또한 크다.

이에 한오름학교에서는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탁수현 교수(상담심리학)와 ‘청소년 심리특성의 이해와 지도방안’, ‘일탈청소년의 이해와 대처 방안’에 관한 강의와 참석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내 아이라서, 내 아이니까 하는 생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 기정체성 혼란을 겪는 성장기 자녀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학업부진, 학교생활 부작을 및 중도탈락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대화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 보육시설 아동 안전사고 최대 4억원 보장

내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종사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11월 서울 용산구 소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제사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낮은 공제료와 보장범위 확대를 기반으로 시설마다 안전사고 발생시 갹소육 등 예방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제료는 영유아 1인당

4890원이다. 보장한도는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이며, 치료비의 90%까지 보상한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등의 경우 반드시 상해 및 배상보함을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민영 보험상품의 경우 영유아 돌연사증후군 보장이 배제되는 등 그 보장 범위가 좁아 각 시설마다 안전사고 발생시 갹소육 등 예방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제료는 영유아 1인당

## 인천상아초, 어린이경제 금융교실 운영

인천상아초등학교(교장 최중숙)는 8일,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경제 금융교실’을 운영하였다. 미래를 이끌어갈 Global Leader육성을 추구하는 이 학교는 금융감독원의 이윤안 강사를 초청하여 정규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경제 금융교육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함으로써 올바른 경제관 정립과 용돈의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 눈높이를 맞춘 수업방식으로 용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용돈 계획하기, 저축의 좋은 점, 은행에서 저금 통장 만드는 방법, 용돈을 잘 쓰는 방법, 용돈을 관리하는 방법 등의 기초 지식을 얻도록 하였다. 용돈 관련 동영상, 게임과 퀴즈 등을 통해 기초 지식을 푼에 익히며, 어린이 금융교실사이트에서 직접 용돈 기입장을 작성해보면서 스스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특강의 마지막은 자신의 한달 동안의 용돈 관리에 대한 반성을 하고 용돈 관리왕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미래의 경제 꿈나무로서의 의미를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경제 금융교실에 참여한 김동준(5·2) 학생은 “어릴 때 용돈 관리를 잘하면 돈을 계획성있게 쓸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용돈

기입장을 꼭 쓰고 계획성 있게 용돈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중숙 교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소중한 꿈나무들이 행복과 성공하는 자신의 미래의 위해서 상

아 G-플래너의 알뜰 샵 Money’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며 “전문가를 초청한 특강을 통해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이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며 경제관과 저축에 대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고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 인천구산중, 학급 홈페이지 경연 대회 실시

구산중학교(교장 유덕화)에서는 12월 9일 학급 홈페이지 경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다섯 개 반에게 시상을 하였다.

이는 각 학급에서 학기 초부터 운영해 오던 학급 홈페이지를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심사하여 선정하여 시상한 것이다.

학급 홈페이지는 담당교사와 학급홈페이지 담당학생이 메뉴 구성 및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여 꾸며 나가고 있으며, 학습 자료실이나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여 학습자료 공유 및 생활지

도에 학급홈페이지가 활용되는데, 담당교사 및 학년부장들이 불법 자료 공유 및 악플 달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게시물을 점검, 학생들이 올바른 인터넷 예절을 배우고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유덕화 교장은 “홈페이지 경연 대회를 통해 올바른 정보선택 능력과 공유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정보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인/편집인 한승균

우405-8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35-1 205호

구독문의/대표번호 (업무국)032-433-1633 (편집국) 032-433-4633

(광고국) 032-433-0633 FAX 032-433-5633

포천지사 031-542-8363 호남본부 062-654-1633

구독료: 한달 10,000원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인친다0600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교육연합신문 학생 기자에 도전하세요!

교육연합신문은 초, 중, 고교생들에게 참여가치로 활동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연합신문은 학생 여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현장, 교육분야 모두에 관한 어떤 정보와 주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다루는 신문입니다.

신문사의 참여가치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관찰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사는 교육연합신문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는 물론이고, 학생들 눈에 띄는 다양한 주제까지 가능합니다.

기사는 가능하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나 현장을 직접 작성하신다고, 책을 통해 익힌 개인적인 관찰자식을 활용해 무엇이 담고 싶었는지 자유롭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종교 또한 도를 넘고 학생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신문 참여가치로 현장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제 1기 학생기자단 모집**

■모집기간  
신청서 제출기간 : 2009. 12. 1(수) ~ 2009. 1. 10(토) 5일간

■모집인원 및 대상  
·초등 3학년 ~ 5학년 ·중등 1학년 ~ 고등 2학년 (성남지역에 거주)

■합격기준과 혜택  
·기사 작성 방법 및 논술 교육 실시  
·연말(12월)을 전후하여 발행될 참여한 학생들의 용기활동 간담회 참여 기회  
·신문 공적이나 전·후보 선거에 대한 투표권 부여 또는 당선권 부여  
·작성 기자명 명단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참가희망 이유, 본인 연락처, 활동 계획) - A4 1장 분량

■접수처  
news@eduyonhap.com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5-1 205호    문의전화 032-433-1633    www.EduYonhap.com